

흠 있는 명화들 과학으로 살아났네... '미술품 치료'의 세계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예술가의 손끝에서 과학자의 손길로

김은진 지음



“무엇을 보존한다는 것은 보존 대상이 가진 가치의 지속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가치는 긍정적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아마존의 밀림과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존한다고도 하고, 사라져가는 전통 민요와 동래 학축을 보존한다고도 한다. 나치의 만행이 고스란히 남겨진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보존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아픔을 품고 있는 서대문 형무소도 보존한다. 물리학에는 질량과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불변의 기본 법칙도 있다.”(본문 중에서)

“미술품 의사”라는 말이 있다. 직역을 하면 ‘아픈 그림을 치료하는 이’를 뜻한다. 보존과학자 또는 보존가라고 불리는 이들은 “작품이 무슨 재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왜 지금의 상태에 이르



복원가가 미술품을 복원하고 있는 장면.



자외선 촬영을 하면 색맞춤 처리를 한 부분이 검게 나타나는 작가 미상의 19세기 풍경화 이미지(왼쪽)와 일반 조명에서 보이는 작품.

렀는지” 의문을 갖는다. 이들 미술품 의사를 흔히 보존가 또는 보존과학자라고 한다. 이들은 복원과 보존, 연구 등을 통해 예술 작품을 오랫동안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예술가의 손끝에서 시작돼, 보존가와 보존과학자들의 손끝에서 확장되는 미술 이야기를 다룬 책이 발간됐다. 한마디로 미술품을 치료하는 보존과학을 다룬 책이다. 김은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가 펴낸 ‘예술가의 손끝에서 과학자의 손길로’가 그것. 책은 미술품 보존에 숨어 있는 과학의 원리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은 종교적 상징성을 지닌 곳이다.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진행되지만, 한편으로 미켈란젤로가 성당 천장에 그린 ‘시

스티나 성당 천장화’가 있기 때문이다. 500년 전에 완성된 그림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한 색을 띠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미술 복원에 있다. 오랜 세월 반복해서 진행된 복원 처리가 있었기에 보존이 가능했다.

렘브란트의 그림 ‘야간순찰’은 대체적으로 어둡다. 당시 집단 초상화의 일반적인 유형과 달리 개개인의 움직임과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그림은 몇 번의 공격을 받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저자에 따르면 1975년에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칼로 갈기갈기 찢었다.

“그림은 수술대 위에 올려졌고 찢어진 부분은 한 뼘 한 뼘 봉합되었다. 찢어진 부분은 그림 뒤쪽에서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실을 한 올씩 올려 이어

주었다. 이 작업은 아주 신중하게 실수 없이 그리고 최대한 상처가 남지 않도록 진행되었다. 날카로운 칼을 따라 뜯겨 나간 그림의 일부는 작은 붓으로 감쪽같이 색을 칠해 주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 하나다. 네덜란드 헤이그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에 소장돼 있는데 ‘네덜란드 모나리자’라고도 한다. 350년 전에 그려진 탓에 소녀의 얼굴에는 수많은 균열이 생겼다. 어느 과학자는 “오른쪽 뺨에 왼쪽 뺨보다 더 큰 다각형 균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술관 보존가들은 “1882년 그림을 배접하면서 물을 혼합한 접착제를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이 과정에서 캔버스가 심하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책은 이처럼 미술품 복원을 둘러싼 사례와 보존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미술품 복원에 과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준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미술품을 안전하게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지난한 노력으로 수렴된다.

사실, 우리는 오래된 것을 허물고 새로 짓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물론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것을 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말한다.

“오래된 것을 조금만 더 소중히 간직하면 그것은 역사가 된다.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역사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작품의 이야기를 내놓기 시작한다. 그림을 가두는 틀이 아니라 바깥세상과 그림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 <생각의힘·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 전태일!

안재성 외 4인 지음



지난 13일은 전태일이 떠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는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평화시장의 봉제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했다.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외치며 분신자살했다. 우리 현대사는 전태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만큼 노동의 역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전태일 사후 50주기를 기리는 책이 5명의 저자에 의해 발간됐다. ‘아, 전태일!’은 한국작가회의 회원인 안재성 작가,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안양대 국문과 맹문재 교수, 전 한에 중 영화와 교수로 박광수 감독, 출판사 목선재 대표인 윤중목 평론가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책은 전태일에 대한 단순 평면적 고찰보다는 입체적 고찰을 시도한다. 전태일을 만나고, 읽을 수 있는 4개의 대표 분야를 선정해 그 분야 최고 필진을 저자로 모셨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전태일 약전’은 전태일의 삶과 죽음을 기록한 소평전이다. 비록 소평전이지만 안재성 작가 특유의 치밀하면서도 부드러운 필치를 느낄 수 있다. 2부 ‘전태일과 한국사회’는 노동정책 전문가 이병훈 교수가 전태일의 불꽃 같은 죽음이 한국사회 전반에 미친 파장과 영향을 조명한다.

3부 ‘전태일과 한국문학’은 전태일의 문학적 글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시인인 맹문재 교수가 전태일이라는 존재가 시와 소설 분야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계보와 지형도를 보여준다. 4부 ‘전태일과 한국영화’는 연출자 박광수와 평론가 윤중목의 대답을 담았다. 이들은 전태일에 대해 영화에 대해 장강과도 같은 깊은 이야기의 실 터를 풀어놓는다. 저자들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목선재·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성격과 삶

김창윤 지음



용의 관점에서 보면 도널드 트럼프의 성격은 외향적 직관형이다. 사업가가 지녀야 할 안목과 협상가로서의 자질이 타고났다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창윤 교수의 견해다. 또한 김 교수는 트럼프 성격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행동은 우울감과 특권 의식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피해를 주고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김창윤 교수의 책 ‘성격과 삶’은 용의 성격 이론으로 보는 성격 탐구서다. 저자는 현장에서 오래 쌓은 경험과 깊은 통찰로 개개인의 성격 차이를 들여다본다. 사실 성격에 대한 이해는 대인관계뿐 아니라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도 필수적 요소다. 용의 성격 이론은 개인의 의사 결정 방식과 행동 양식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인간관계의 갈등 해결뿐 아니라 타인의 모습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저자는 용의 성격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과 호암 이병철 선대회장, 애플의 스티브 잡스 등 다양한 인물을 예로 든다.

삼성 그룹 창업자 이병철 선대회장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생각하는 내향적 성격의 소유자라고 본다. 깔끔하고 튀지 않는 세련된 옷차림은 감각적 인상을 준다는 견해다. 이와 달리 직관적 유형의 현대 그룹 창업자 정주영 명예회장은 전형적인 외향적 직관형이다. “이봐, 해 봤어?”로 대변되는 도전과 개척 정신 등의 면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책에는 평소 저자가 환자들을 진료하며 자주 하는 얘기를 모은 부분도 담겨 있다.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과 분노 조절법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침 등도 설명한다.

<북캡퍼스·1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쩌면 찬란한 우울의 팽세

김승희 지음



‘불멸이란 말을 몰라 날마다 찬란했다.’

프랑스 철학자 푸코가 말한 헤데로토피아는 유토피아에 맞선 개념으로 모든 장소의 바깥에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시인 김승희에게 헤데로토피아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였다.

김 시인이 ‘33세의 팽세’ 이후 다시 33년만에 ‘어쩌면 찬란한 우울의 팽세’를 펴냈다.

광주에서 태어나 서강대 영문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 시인은 1973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돼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저자는 “이 책은 베네치아 기행문이 아니다”면서 “베네치아의 거울 속에서만 보이는 자기 성찰의 모습이 담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워진 언어와 깊어진 사유, 자유로운 유희의 웃을 입고, 베네치아를 배경으로 한 사색의 갈피를 펼쳐 보이며, 베네치아의 햇빛과 물결, 골목길, 아름다운 문화유산들, 수사어스와 곤돌라, 예술과 역사 등을 담았다.

저자는 베네치아 델라콜리, 카르페디엠, 메멘토 모리 등이 담겨있는 자아성찰적 글쓰기라고 전한다.

책은 작가의 말 ‘불멸이란 말을 몰라 날마다 찬란했다’로 시작해 1부 ‘나는 베네치아의 소녀시대’, 2부 ‘가시나무새는 가시에 산다’, 3부 ‘당달아’의 행복론’, 4부 ‘인생은 각목 같은 것일지라도 달같은 소중하다’로 이어진다.

소설가 최윤은 추천사를 통해 “골목을 아무리 돌고 돌아도 그 만큼 뒤로 숨는 베네치아의 미로에 ‘글 쓰는 여자’로 길 잃은 듯 홀로 서서, 시인은 단순하게 깊어진 해방된 영혼만이 볼 수 있는 생의 심연을 들여다 낸다”고 전한다. <문학판·1만8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매물건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리조트 매매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 토지 : 22784㎡(6892평) • 건축물 : 4290㎡(1298평) 지상5층
- 총객실수 : 55세대 • 부대시설 : 세미나실, 카페, 매점, 바베큐장
- 매매가 : 75억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 ·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